

2030 행복한 목포... 일자리·창업 청년정책 쏟아진다

4차 산업 청년 채용 기업·기관

매달 인건비 220만원 등 지원

해양·수산 창업 1500만원 지원금

공동체 활성화 청년 정착도 도와

목포시는 지역에 청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일자리와 공동체 활동 정책사업을 활성화한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형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 사업', '목포시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4차산업' 사업은 목포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4차 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인건비 월 220만원과 활동수당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큰 도약' 사업은 목포지역 중소기업에 인건비 월 210만원, 활동수당 25만원을 제공한다. 취업 상담도 함께 벌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스마트+ 해양수산 창업' 사업은 목포의 주력 산업인 해양·수산·식품 등 분야 청년 창업가에게

1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이외에도 창업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사업'에는 전남도와 목포시, 영암군이 협력해 참여한다.

조선업 도약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을 찾는 청년들의 조선업 취직을 돕고 있다.

고용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국비 6억2000만원 포함 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직업 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만 18~34세 청년 120명이다.

'청년도전' 사업은 참여 청년이 교육을 이수하면 5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 프로그램' (총 40시간)과 5개월간 50만원씩 참여수당을 더 주는 '도전+ 프로그램' (총 200시간)으로 나뉜다. 진로 체험과 기업 탐방, 이력서 작성, 공모전 참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청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벌이고, 식습관 등 생활 관리도 제공한다.

사업 운영기관인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청년도전' 사업을 2년간 이어오며 2021년 92.4%, 2022년 100%의 이수율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전남중앙병원, 목포가톨릭대학, 남

도씨푸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취업했다. 지난해 이수자 249명은 모두 워크넷 구직에 참여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56명), 직업훈련(15명), 취창업(62명) 등의 사후 관리를 받았다. 청년센터는 올해도 지난 2021~2022년 참가자들에게 최소 3개월간 사후 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목포시는 전남도 주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신중년 창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올해 2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10명의 창업을 도울 목표를 세웠다.

목포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외에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정착 여건을 다지고 있다.

청년 공동체는 5명 이상 청년들이 모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전남지역 10개 팀이 선정됐고, 목포에서는 1개 팀이 포함됐다.

목포시는 앞으로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14개 공동체를 배출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목포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남양 수변공원의 해님이 풍경.

걷기좋은 도시 무안... '워커블시티' 선포

13일 산책로 걷기대회도 열려

무안군이 13일 남양 자연거공원 일원에서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시티 무안'을 선포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제1회 무안 산책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움크렸던 군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아름다운 남양 수변공원의 정취를 누리며 함께 걷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삼향읍 주민자치센터 소속 동아리의 통기타,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워커블시티 무안 선포식을 갖는다.

치매 예방 상담, 우울증 검사 등 건강 체험, 황토 맨발걷기와 건강정책 홍보관, 안전정책 홍보

관, 축제·관광사업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걷기대회는 자연거공원에서 출발해 수변공원 풍차에서 반환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왕복 1시간 소요된다.

무안군은 지난 2월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행길 조성, 보행환경 개선, 보행문화 조성의 3대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등 워커블시티 무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워커블시티의 첫발을 내딛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걷기대회를 통해 더욱 건강해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온 관광객들이 유채꽃길을 걷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8만명 즐겼다

11개 코스 '청산 완보' 1628명 참여

달팽이 엽서·별명·야간 투어 인기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열린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에 따르면 '볼볼볼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청산 완보'에 1628명이 참여했다.

청산도의 밤하늘 별 은하수와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보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밤하늘을 보며 청산도의 이야기를 듣는 '야간 투어 버스' 등은 전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군은 전했다.

엽서를 써서 보내면 1년 뒤 도착하는 '청산도 달팽이 엽서'는 준비해 둔 엽서 1600장이 모두 소진됐다.

청산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된 '플로깅 캠페인'에는 500여 명의 참가자가 쓰레기를 수거한 후 친환경 키트를 받았다.

달팽이로 변신한 청산도 주민을 찾는 이벤트인 '달팽이를 찾아라!'는 4300여 명이 몰렸다.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이 갖춰진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축제 기간 1200여 명이 방문해 해양치유를 체험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축제 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청산도를 찾아 힐링하고 청산도 관광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9월까지

평화광장 해양레저체험교실

카약·제트스키 무료로 즐긴다

목포 평화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평화광장 해양레저 체험교실'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다.

해양레저 체험교실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이 주관하고 전남도·목포시가 후원한다.

이곳에서는 카약, 패들보드 등 무동력 레저기구와 제트보트와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오래된 시설을 새로 교체해 안전성을 높였다.

모든 체험은 현장에서 신청 접수한다.

무동력 레저기구는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접수한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제트보트 체험은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할 수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해양레저 체험교실'에서 참가자들이 무료 카약 체험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제트스키 체험은 오는 7월과 8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한다. 이 외에도 바나나보트, 팽공보트 등을 탈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조운형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장은 "코

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되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이 낭만 항구 목포를 알리는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j@kwangju.co.kr

민·관 함께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 박차

7개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 분주

진도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도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마을 꽃동네와 사계절 꽃피는 꽃섬, 도로변 옹벽 피복지 조성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7개 읍면에서는 공원 녹지 돌봄 단체를 구성해 꽃길(6곳), 꽃동산(6곳), 경이화분 조성, 마을 꽃동네 만들기, 사계절 꽃피는 꽃섬 조성 등을 펼치고 있다.

나리 방조제 등을 중심으로 유채 등을 심어 꽃길

을 조성하고 임회 남동마을의 유유지 등을 활용한 금잔화 등의 꽃동산을 확충한다.

특히 의신면 모도마을에 꽃길, 탐방로, 포토존 등을 설치해 사계절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도로변 옹벽 피복지 조성사업은 약 93km의 거리에 덩굴성 초화류나 황금사철나무 등을 심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 추진으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지난 9일 열린 가족센터 개관식에서 박우량(맨 왼쪽) 군수와 신선희(가운데) 가족센터장, 도정훈 크레도오프쇼어 대표가 도서 기탁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가족센터 개관...취약 가족 맞춤 서비스

크레도오프쇼어, 도서 기증

지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신안군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다.

9일 열린 개관식은 박우량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김형성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안군 가족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0억을 투입해 총면적 3403㎡으로 완공됐다. 1층은 가족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무실, 청소년 상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상담실, 요리실, 학습실, 1004카페, 1004 책방 등으로 만들어져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층에는 압해읍사무소가 자리잡아 행정복합복지시설 공간으로 구성됐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모든 취약한 가족들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합복지 서비스 기능을 실행한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크레도오프쇼어(주)의 도서 기증식도 열렸다. 크레도오프쇼어는 신안 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어린이 도서를 포함한 총 40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가족센터에 기탁한 도정훈 크레도오프쇼어 대표 표는 신안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가족의 행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가족센터가 선도적인 역할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며 가족 친화적인 나눔과 실천에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